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12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메밀 고부가가치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9면(24.4.1.)	미래농업육성과	한국영농신문
○	노지 감귤은 작년보다 줄었다-5면	-	제주일보
○	제주 1차산업 ‘선방’ 2·3차산업은 ‘고전’-4면	-	제민일보
○	예비 귀농·귀촌인 40명 선착순 모집-4면	-	제주매일

(한국영농신문: 2024년 4월 01일)

○ 제주메밀 고부가가치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9면

제주메밀 고부가가치화로 시장 경쟁력 확보

제주농업기술원, 관광 상품화 제품 패키지 개발사업 추진

제주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건강식품과 경관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특화작목 메밀의 소비 확대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해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과 협업하여 '제주메밀 제품 패키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메밀건면 등 제주메밀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면 제주는 명실상부한 메밀의 주산지지만 강원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음료, 면류, 묵, 유산균 등 다양한 메밀 가공제품이 출시되는 데에 비해

제주의 가공제품은 대부분 메밀쌀, 메밀가루 등 1차 가공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주메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공상품 개발과 판매 촉진, 이미지 향상을 포함해 제주의 통합 브랜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메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종의 메밀 가공상품(건면, 커피)을 개발하고, 소비확대 및 제주메밀의 통합브랜드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도내 메밀가공 3개 업체와 함께 '제18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해 제주 메밀과 가공제품을 홍보했다.

지난해 가공식품 개발에 이어 올해 추진하

는 패키지 개발사업으로 메밀건면과 메밀커피 등 메밀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고급 선물세트를 구성하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메밀의 판매를 촉진시켜 제주메밀 통합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브랜드 '제주메밀'을 활용해 개발한 디자인은 모든 메밀제품에 사용 가능하도록 해 제주메밀의 브랜드화, 관광 상품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농업기술원 김태균 미래농업육성과장은 "지속적인 식품소재 발굴 및 가공식품 개발 연구로 제주메밀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4.1.

한국영농신문 9

(제주일보: 2024년 4월 11일)

○ 노지 감귤은 작년보다 줄었다-5면

노지 감귤은 작년보다 줄었다

한라봉·레드향도 타 품종 갱신으로 재배 면적 감소

올해 감귤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다소 줄어 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관측조사(9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온주 감귤 총 재배면적은 1만5234ha로 1년 전보다 261ha(1.7%)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노지 온주 재배 면적은 1만3945ha로 전년 대비 254ha(1.8%) 줄었다. 월동(비가림) 온주 면적도 지난해 878ha에서 올해 들어서는 857ha로 21ha(2.4%) 감소했다.

4.12. 올해 하우스(가온) 온주 재배 면적은 432ha로 전년 대비 14ha(3.3%) 늘어 대조를 보였다.

노지 온주는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폐원,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작형 전환 등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월동 온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하우스 온주와 만감류로 전환되면서 면적이 줄었다.

하우스 온주 작황의 경우 일조량 부족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반적인 생육 상황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온주 감귤과 달리 만감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49ha(1.2%) 늘어난 4278ha로 조사됐다.

품종별로는 한라봉이 1535ha로 1년 전보다 13ha(0.9%) 줄었다. 고목

화로 생산성과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 선호가 낮아 타 품종 갱신이 늘어난 탓이다.

낙과 및 열과 발생으로 생산성이 낮아 타 품종으로 전환이 활발한 레드향도 재배 면적이 20ha(2.3%) 줄었다.

반면에 소비자 선호가 높아 신규 식재가 늘어난 천혜향은 1043ha로 1년 전보다 53ha(5.4%) 늘었다.

윈터프린스 등 국내 육성품종 보급이 확대되며 올해 '기타 만감류' 재배 면적도 지난해보다 30ha(3.7%) 늘어난 829ha로 집계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감귤 생산량은 재배면적 변화보다 기상 여건과 병충해 발생에 따른 단수 증감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진주리 기자

(제민일보: 2024년 4월 11일)

○ 제주 1차산업 ‘선방’ 2·3차산업은 ‘고전-4면

제주 1차산업 ‘선방’ 2·3차산업은 ‘고전’

제주 2월 경제성적표

농산물 출하금액 전년 15%↑
수산물 2.2%↓ 감소세 방어

제조업 생산지수 23.2% 하락
내국인관광객 13만여명↓ 등

지난 2월 제주 경제성적표가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선방한 반면 2·3차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1일 도청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경제동향(2024년 3월호)’을 공개했다.

경제동향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제주지역 농산물 출하액은 1996억원으로, 전월(1월, 1918억원)보다는 4%(78억원), 1년 전(2023년 2월)보다는 15.0%(26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실적 4.12% 우려됐던 수산물 분야 2
제민일보 4

월 생산액은 5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685억원과 비교하면 12.9%(88억원) 줄어든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달 610억원과 비교하면 2.2%(13억원) 감소하는데 그쳐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산물 출하액은 87억원으로, 전월보다는 25억원 줄고 지난해 같은달보다는 1억원 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1차 산업 분야 실적이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2·3차 산업 분야에서는 고전했다.

제주지역 제조업 생산지수(2020년=100)를 살펴보면 지난 2월 76.5로 나타나면서 전월(106.6)보다는 28.2% 줄고 전년동월(99.6)보다도 23.2% 수준 감소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음료(59.1)와 비금속광물(64.8) 생산지수가 전월, 전년동월 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생산지수는 전월(110.0) 대비 무려 46.3% 감소했고, 전년동월(100.2)보다도 41.0% 하락했다.

비금속광물 생산지수 역시 전월(83.8)대비 22.7% 줄었고 전년동월(97.6)보다는 33.6% 감소하는 등 큰 하락폭을 보였다.

식료품 생산지수의 경우 92.8로 전월대비 11.9% 감소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소폭(3.6%) 증가했다.

이와 함께 2월 제주 관광객 수는 101만2661명으로 집계되면서 전월대비 4.0%, 전년동월대비 3.9% 각각 감소했다.

내·외국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13만7860명(13.2%) 줄어든 90만3856명으로, 이같은 감소분을 전년동월대비 9만5876명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이 일부 메웠다.

이외에도 고용 분야의 경우 실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5.6% 증가한데 비해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2.5% 상승하면서 113.8로 나타났다. 특히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16.9% 상승한 135.6으로 집계됐다.

김수환 기자

(제주매일: 2024년 4월 11일)

○ 예비 귀농·귀촌인 40명 선착순 모집-4면

예비 귀농·귀촌인 40명 선착순 모집

제주시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24년 제1기 귀농·귀촌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제주매일 4은 24~25일 이틀간 제주창조

경제혁신센터 3층 트랙룸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 인원은 40명으로 오는 17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jungsh90@korea.kr) 접수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728-2921(제주시 마을활력과). 김진규 기자